

拜하고 있었다는데
當時塔材는 좀더 많
은 部材가 殘存하였
었다 한다. 이들 遺
蹟에 關하여는 아무
런 記錄도 없고 그
동안 筆者가 이 地
方을 數次 踏査하
였었는데도 發見치
 못하고 昨年 十二月

初 新羅五岳調査次 同人 文甲洙 尹容鎮 金鍾太 諸氏와 同行하였을 때 처
음으로 調査하였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佛像은 原位置로 道路右側 밭속에 南向하였는데 光背는 具備하였으나
膝部以下가 埋沒되어서 알 수가 없었다. 坐像과 光背는 같은 돌(同一石)
로서 陽刻된 佛像이 「테리이푸」가 強하여 거의 圓刻에 가깝다.

如來像으로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가 돌며 相好는
圓滿하나 兩眉만 뚜렷한 鼻, 口脣과 兩耳에 磨損이 있어 慈悲스러운
原形을 그릇치고 있다. 右肩偏袒한 法衣는 流麗하게 兩膝을 덮었고 手
印은 降魔印을 結하였다. 埋沒된 下部를 試掘하여 蓮華臺一石이 倒置된
것을 確認하였으며 이것은 下臺石이 아닌가 짐작된다 ① 그리고 바로
앞쪽에 圓形蓮華臺石 一座가 放置되어 있는 바 (徑一〇〇cm 厚三五cm)
上面에는 徑二八cm, 深十三cm의 圓孔이 있고 單葉重瓣仰蓮內는 彫飾
이 있는데 이 臺石을 坐像臺座로 본다 면 上臺로 推定된다 ② 光背는 舟
形으로서 頭部에는 大彫圓帶를 돌리고 그 週邊에 八瓣의 單葉重瓣蓮華
紋을 彫刻하였으며 그 밖으로 圓形의 頭光을 太彫하였다. 身光은 肩上
部의 頭光에서 太彫로 내려 區分하였는데 그 間地에는 山形紋의 彫飾이
있어 注目되었다. 化佛은 頂上에 一軀와 左·右一軀씩 都合 三軀인데
모두 蓮莖이 있는 蓮華座 위에 結跏趺座하였으므로 光背의 周緣에는 火焰
紋이 流麗하다. 年代는 坐像의 衣文 및 光背의 形式과 蓮瓣樣式 手法으

로 보아 高麗初期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

坐像高 一一四 肩幅 六三 膝高 一六 坐像頭高 四三 胸幅 三六 膝幅 七〇이며
光背는 總高 一八二 中幅 一一二 頭光外徑 七二 厚 二〇 廣幅 一一七 頭光內徑
三五 化佛高(頂上) 二三 化佛高(左右) 一九이다.

石塔材는 佛像에서 二〇m 떨어진 앞쪽 밭가운데 放置되었는데 上層
基壇甲石으로 쓰여졌었던 것이다. 다른 部材는 埋沒되었음인지 보이지
않으므로 原位置는 알 수 없다. 副緣이 整然하며 上面 塔身받침部에는
伏蓮이 둘러져 있는데 이러한樣式 手法은 이 地點에서 그리 멀지않은 求
禮地方에서도 그 類例를 볼 수 있는 바로서 ③ 智異山 西麓의 같은 地
域에서 ④ 볼 수 있는 同系의 石塔의 分布를 엿볼 수 있음이 注目된 다
할 것이다.

註

① ② 上面中央의 圓孔을 經文의 密藏處로 본다 면 上臺가 될 것이고 또
實測値로 보아 거의 均衡이 맞는다. 그러므로 試掘에서 確認한 臺
石은 下臺로 짐작된다. 이 곳을 發掘調査하면 完全히 部材가 收拾
될 것으로 믿는다.

③ 秦弘燮: 「求禮論谷里의 石造遺物」(本誌 第三卷 第八號) 參照

④ 同郡 二白面 孝基里 孝村部落(귀곡골)의 三層石塔에서도 같은 類
例를 調査했는데 이 一帶는 智異山西麓이 된다.

資 料

長水郡 下月里 出土遺物

洪 思 俊

이 곳에 紹介하고자 하는 遺物은 一九六四年 五月 七日附 長水郡教育
廳에서 扶餘博物館에 移管된 것들이다. 出土地 出土日 出土由來는 다음
과 같다.

出土地: 長水郡 山西面 下月里

出土日…一九六四年三月二十七日
出土由來…정상수 정상만 兩人에 依하여 山에서 갈퀴발에 걸쳐 나왔
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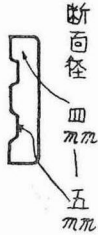
이 遺物들을 살펴 보면 三國時代 貴族階級에서 使用하였던 婦人裝飾
具들이다. 出土遺物 全體를 보아서 相當한 副葬品들이 있었으리라라고 推
測되나 餘他遺物은 알 길이 없다. 入手된 遺物은 珠玉 釧 金珥 等 三點이
다. 珠玉에는 翡翠硬玉 藍色硝子珠 瑪瑙珠 水晶珠 勾玉等인데 이것들은
瓔珞의 貫絲가 腐蝕되는데서 홀어져서 出土된 것이고 釧은 五片으로 折
斷되었고 그나마 破片이나 銀心에 鍍金한 것 같으며 金珥는 一雙에 一
個만 있는 것이다.

三國時代 百濟와 新羅는 智異山을 中心하여 國境線이 된 것인바 智異
山 西側에는 長水(百濟兩坪縣) 南原(百濟 古龍郡)과 東側에는 居昌(新羅居
烈郡, 居陞) 安義 雲峰(新羅 母山縣 景德, 阿英城 阿莫城)이 있었음으로 이
번 長水郡 出土 遺物은 이같은 地域의 初有의 遺品으로 推測되는 바이다.

一、瓔珞 一連

- 1、翡翠硬玉 一個 不等邊四角形 廣面 1cm 厚 六mm
- 2、藍色硝子珠 約 二五〇個 徑 一·二cm—三mm
- 3、瑪瑙珠 三個 大二個 徑 1cm 小一個 徑 一·七mm
- 4、水晶珠 一個 立方形
- 5、勾玉 一個 長 一·九cm

二、釧 五片 斷面隋圓形 斷面徑 4mm—5mm



三、金珥 一個 細環 徑 一·八cm

青銅禁口銘文 追記

李 浩 官

德壽宮美術館에 所藏된 禁口로서 考古美術資料集「金石遺文」에 실린것

中에서 追後 調査에 依하여 새로히 判讀된 部分이 있음으로 그 部分을 追
記하며 銘文이 記錄된 새로운 青銅禁口를 아울러 紹介하여 두고자 한다.

一、大定九年銘禁口(金石遺文 一六一面)

(大定九年己亥五月 日祝聖壽萬年國內泰平) 千弋永息法界生□共證菩提
結愿四衆各證福壽先□父母自他一時成佛 (道) 歲主衛尉王夫同正李公弼
某者氏 (一) 안은 旣히 判讀된 部分)

二、壬午銘飯子(金石遺文 一七六面)

(壬午四月初六日奉) 夫□福(寺飯子)公州戶長具義晴□長上戶長二長命
原州人馬長命次知大師唐林是亦中聖衆金)諸(人長命)

三、青銅盤子

圓形으로 同心圓이 陽刻되었고 中央 撞座에는 乳狀紋이 있다. 兩耳는
環狀으로 口緣에 一七三字의 銘文을 刻字하였다. 時代는 李朝中葉以後
에 屬하는 作品이 아닌가 생각되며 高麗時代의 盤子에 比하여 몹시 둔한
感覺을 주고 있다. 記錄을 보면 一九一〇年 一月 十九日 日人 近藤佐五郎
으로부터 四〇圓에 購入한 것으로 되어 있다.

實測值 徑 四〇·七cm 側幅 九·八cm

銘 文

十八年壬辰六月 日逍遙峯消遙寺施主 京畿驪州居乾命乙酉生童蒙家金泰鎮
庚寅生童蒙金永鎮兄弟壽命長脩富貴功名子孫昌盛大發願 癸巳生童蒙金海
鎮壽命 長脩發願

新羅 階段隅石의 新例

申 榮 勳

新羅統一期 建物基壇에 附設되었던 階段隅石의 遺例는 不幸히도 豊富
하지 못한 形편이다.